

권율부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및 권율장군 기념비 제막식

반세기 이어온 권율정신! 백년을 준비하는 60보병사단!



권율부대 창설 제50주년 기념행사 및 권율장군 기념비 제막식이 7월 31일 10시 권율부대(제60보병사단)에서 개최되었다.

제1부 창설기념식에서는 이명철 사단장과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 예하부대 연대장, 권재국 대중회 고문, 권영하 안동권씨 대중회 수석부회장, 권오의 삼부개발 대표이사, 권오돈 추밀공과 회장, 권오상 상임위원, 권태윤·권중숙 대중회 부회장, 권경일 추밀공과 사무처장, 권병돈 추밀공과 정경공 종중 회장, 권순호 매현공 종중 고문, 권태정 종보편집위원장, 권운순 이사,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권 편집국장, 160여단 조경여단(풍양조씨), 161여단 이신의 여단(전의이씨), 162여단 선거이 여단(보성선씨), 포병여단 변이중여단(황주변씨)의 종중 대표, 국군장병들까지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명철 사단장은 기념사에서 권율부대 창설 50주년 되는 날 기쁘고 뜻깊은 날이다. 지역구 한준호 국회의원과의 권율부대 상징인 권율장군의 안동권씨와 예하부대 풍양조씨와 보성선씨, 황주변씨, 전의이씨 등 상징인물 대중회에서 다 오셨다.

상징인물을 예하부대까지 활용하고 있는 부대는 권율부대밖에 없다. 상징 인물과 관련된 대중회가 다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영과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봉사로 지금까지 이어 왔다. 임무수행 잘해서 100년 전통을 이어

가자. 권율장군 행주대첩 승리는 권율장군의 지혜와 부하들의 조력으로 가능했다. 피 흘려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편안을 위해 여기 왔다. 18개월 즐겁고 행복한 부대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지휘관들의 전투력을 기원한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18개월 동안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장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소장 김관수 동원전력사령관은 빛나는 애국의 역사에 경의를 표한다는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축하영상에서는 고양시장과 배우 이한위씨,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 부대장병들이 축하했다. 이어서 검포추점과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제2부 행사로 권율장군 기념비 제막식이 사단 본관 앞에서 거행되었다. 권율장군 기념비 기증자인 권영선 대한상운(주) 회장을 대신하여 아들인 권오의 삼부개발 대표이사가 축사를 대독했다.

권영선 회장은 축사에서 “권율의 기백을 이어받은 최정에 보병사단”이라는 명성이 어울리는 자랑스러운 장병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니 마음 한편 든든함과 함께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일일이 전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율부대 장병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여 년 전 왜적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군민이 합심하여 열세의 조건 속에서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권율장군의 뛰어난 전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숭고한 정신이 그 당시 행주산성을 지키던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낙네까지도 행주에 돌을 나르면서까지 보여주었던 그 용감하고 단결된 행동들은 오천 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 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흔을 넘은 나이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한국전쟁 직후에 군대를 다녀와서 나라 없는 설움과 전쟁의 비참함을 몸소 느꼈던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은 멀리는 수많은 외침을 극복했던 선조들과 가까이는 여러분의 할아버님, 아버님이 지켜냈던 소중한 조국입니다. 지금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고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권율부대를 제대하는 날, 대한민국의 남아로 우리 조국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은 평생동안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느라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아들 세 명이 육군사병과 공군학사장교로 모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고 이제 손자들도 빠짐없이 육군사병으로 의무를 마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취임



(사진 :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權五乙, 김교공과 35世)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7월 25일 오후 제3대 국가보훈부장관에 취임했다.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25일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특별한 보상으로 돌아오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에 걸

맞은 보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혼과 뜻을 기려 통합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년 8월 찬조금 및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25.7.1> 권순공 종보편집위원
<25.7.1> 권원희 종보편집위원
<25.7.7> 권태정 종보편집위원장, 상임위원(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25.7.22> 권백신 부회장(교례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인사 발령>

<25.7.1> 권나원 총무과장

<찬 조 금>

권중현(서울강북) 100,000

<임원 회비>

상임위원 권주연(안동) 1,000,000

합계 : 1,1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제433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

임진왜란 최초 육전(陸戰) 승전

제433주년 충장공 권율 도원수 이치대첩 기념제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시 : 2025년 8월 26일 (화) 오전 10시
- ❖ 장소 : 이치대첩지 총장사 ❖ 주최 : 금산군청 ❖ 주관 : 진산역사문화연구회
- ❖ 주소 :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191
- ❖ 문의 : 대중회 사무처 02-2695-2483~4

금년부터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진산역사문화연구회에서 이치대첩제를 주관합니다. 연구회에서는 이미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였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좀 더 달라진 이치대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있으니 뜻 있는 종중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계좌: 농협 317-0009-7471-41 예금주: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영창

